

女性の地位와 出産力에 관한 質的研究

金 漢 坤*

《目 次》

- | | |
|------------------------------|---------------------------------|
| I. 들어가는 말 | IV. 한국의 출산력 감소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결과 |
| II. 질적접근방법과 양적접근방법 | V. 맺 음 말 |
| III. 포커스그룹세션의 연구수행 방법과 절차 | |

I. 들어가는 말

지난 30년에 걸쳐 경험한 인구변화의 결과 한국은 낮은 출산율과 낮은 사망율로 특징지어지는 인구변천의 제3단계에 도달해 있다. 한국의 출산율의 변화는 1960년 이전에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고 실질적이고 괄목할만한 출산율 감소의 대부분은 1960년 이후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출산율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규명한 수많은 양적연구들은 그 원인으로서 1962년이래 지속적으로 수행된 일련의 경제개발계획에 따른 경제발전과 1961년도에 정부주도하에 도입된 가족계획사업등을 들고 있다(Cho and Perry, 1979; Lee, 1979,

Cho et al., 1982; Kim, 1985, 1988, 1989).

그러나 한국의 경우 단기간에 걸친 괄목할만한 출산력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수준의 사회경제발전과 출산율을 가진 다른 국가들과 비교했을때 이들 국가들보다 노동력 부분에 있어서 여성들의 지위가 상대적으로 낮을 뿐만 아니라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 역시 매우 낮은 것 또한 사실이다. 즉 한국은 출산율의 감소에 상응하는 여성 노동력의 증가나 직업분야에서의 여성들의 지위향상을 수반하지 않은 채 경제발전과 출산율을 경험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면서도 어떻게 해서 낮은 출산율에 도달할 수 있었는가를 질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 嶺南大學校 社會學科 教授(本 研究는 美國 록펠러 財團의 研究費 支援을 받아 이루어졌음을 밝혀둡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두가지 이유로서 질적 자료를 사용하고자 한다. 첫째, 여성의 지위와 다른 요인들이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을 규명하는데 있어서 전적으로 양적인 자료에 의존하는것 보다는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원인들을 규명하는데 질적인 접근방법이 보다 더 포괄적인 접근방법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둘째, 질적인 연구자료들이 한국의 출산력을 감소시키는 직접적인 중간매체(proximate)의 영향력을 규명하는데 보다 더 유용하기 때문이다.

II. 질적접근방법과 양적접근방법

양적접근법과 질적접근법은 사회과학적 자료를 분석하는데 있어서 매우 상이한 접근방법들임에 틀림이 없다. 예를 들면 이 두가지 방법은 분석범주를 다루는데 있어서 상이할 뿐만 아니라 변수들 사이의 관계를 개념화하는 방법과 연구에 적용하는 응답자들의 종류나 사례수에 있어서도 매우 다르다고 할 수 있다(McCracken, 1988). 비록 두가지 접근방법들이 본질적으로 서로 상이한 점들을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 이들 방법들이 장점과 단점 모두 지니고 있는 것 또한 부인할 수는 사실이다. 즉 많은 경우에 있어서 이들 접근방법중의 한가지가 가진 장점들이 다른 접근방법의 단점을 상호보완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고 할수 있다. 그러므로 이들 두가지 접근방법을 혼합해서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유용할 것이다.

최근 몇년 동안에 인구학자들사이에 양적접근방법에 질적연구방법을 통합하는 것에 관한 많은 관심들이 있어 왔다. 특히 노델(Knodel, 1987)과 그 동료들에 의해 수행된 "태국의 자녀재생산 혁명에 관한 분석"과 같은 연구는 출산력연구에 있어서 양적자료와 질적자료를 통합해서 사용한 최초의 사례들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질적접근방법을 도입한 다른 인구학적 연구들로서는 매시(Massey, 1987)와 그 동료들에 의한 멕시코로부터 미국으로의 국제인구이동에 관한 분석과 워터스(Waters, 1990)의 민족성에 관한 연구와 시몬스(Simmons, 1992)와 그 동료들에 의한 벵글라데시의 가족계획사업종사자들에 관한 연구들을 들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노델과 그 동료들이 타이랜드의 출산력연구에서 도입하였던 연구모델을 한국의 출산력분석에 사용하였다. 포커스그룹 면담법(Focus group sessions)을 통하여 수집한 질적인 자료를 연구분석에 이용한 주된 이유는 그러한 자료들이 양적인 자료에 대한 실질적인 맥락을 제공해 줄것으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노델과 그 동료들이 제시한 방법들(Knodel et al., 1987; Caldwell, Reddy and Caldwell, 1984; Caldwell, 1985)을 적용함으로써 가령 양적 자료에만 의존하는 경우에 밝혀수 있는 한국출산력에 미치는 발전, 가족계획, 그리고 여성지위의 영향력보다는 양적인 자료와 질적인 자료를 접합함으로써 보다 포괄적으로 그 영향력을 탐색해 낼수 있다고 믿는다. 그러므로 이러한 질적자료를 통하여 그와 같은 관계들의 근원적인 사회적 심리적 배경에 대한 광범위한 정보를 우리들에게 제공해 줄것을 기대한다. 즉 질적조사에 의한 정보는 양적조사를 통하여 얻어진 자료들에 의해 밝혀진 출산력의 다양한 결정인자들에 대한 이해를 도와 준다는 것이다.

인구학적 연구분야에서는 포커스그룹 면담연구가 비교적 생소한 관계로 포커스그룹 연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6명에서 8명으로 구성되는 11개의 포커스그룹 면담법을 실시했다. 이들 중 4개 세션은 이미 가임기간을 지난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3개 세션은 집바깥의 직업을 가진

여성들로 구성되었다. 이들 그룹들에 대한 조사들은 대구시와 그 인근 농촌지역에서 1989년 7월과 8월 2개월에 걸쳐 이루어졌다.

포커스그룹은 연구대상이 6내지 8명으로 구성되는 11개의 포커스그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참가자들은 연구주제에 관한 토론에 참여한다. 집단토의가 이루어지는 동안에 사회자는 토론지침서에 있는 주제를 중심으로 토론이 이루어지도록 유도하되 집단토의가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하며 예기치 않았던 주제에 관한 토론에 대해서도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각 세션의 집단토의 참가자들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동질성을 최대화할 수 있도록 선발됨으로써 토의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도록 하는데 왜냐하면 만약에 집단토의 참가자들이 이질적으로 구성되어 있을 경우에는 토의참가자들이 자연스러운 토론을 할 수 없기 때문이다.

포커스그룹을 선정하는데 이용된 네가지의 주요 기준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혼여성들이 가임기간에 속하느냐 아니냐의 여부, 둘째 대상자들이 집바깥의 직업유무, 셋째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거주여부, 넷째 상류층에 속하느냐 아니냐의 여부 등이다. 동질성을 가진 토론집단에 대한 조사를 각자 다르게 수행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봤을때는 이질성을 가진 조사대상자들에 대하여 깊이있는 탐구가 가능하였다. 각 토의집단에서 있었던 토론내용들은 모두 녹음기에 기록이 되었으며 사회자는 두명의 보조자들의 도움을 받아 포커스그룹 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두명의 조사보조원은 학부에서 사회학을 전공하는 여학생들이었으며 그들중 한명은 녹음기의 작동을 맡고 다른 한명의 보조원은 토론에 참석한 사람들의 발언내용의 주요점만 받아적었다가 조사후 녹음된 내용을 재생할 경우에 발언한 사람을 파악할 수 있게 하였다. 여학생을 조사보조원으로 선택한 이유

는 포커스그룹세션의 진행자가 남성이므로 민감한 형태의 주제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질 때 남성들만 있을 경우 보다는 여성이 있으므로해서 분위기를 보다 자연스럽게 유도할 수 있어서 보다 양질의 자료를 획득할 수 있기 때문이다(Williams, 1989; Anderson and et al., 1988a, 1988b).

노델과 그 동료들(1987)이 지적한 바와 같이 포커스그룹면담법은 "비공식적이면서 토의과정에서 그룹성원들이 서로서로 성원해 줄수 있는 분위기와 질문자체가 폐쇄되어 있지않다. 그러므로 상반되는 견해를 가지거나 다양한 사회적 지위를 가진 사람들이 모인 집단에서는 거론하기 상당히 어려운 정도의 의견이나 행동에 대하여 참가자들이 보다 심도있게 얘기할 수 있도록 격려해 준다". 많은 경우에 있어서 참가자들은 집단토의과정에서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제기되는 발언내용들에 관하여 반응하도록 기대되어 진다. 이와 같은 상호작용들은 기억이나 다양한 의견들의 표출들을 자극시키며 그 결과 표본조사에서 얻을 수 있는 것 보다 훨씬 구체적인 주제에 관하여 보다 더 완전한 토론을 유도할 수 있다.

그러나 포커스그룹세션 연구를 실시하는데 있어서 뿐만 아니라 그러한 자료를 이용하는데 있어서도 제한점들이 있으므로 그러한 점들을 간략하게 언급하고자 한다. 즉 포커스그룹세션 연구에서는 조사과정에서 조사대상자들이 언급한 내용들을 해석하는 과정에서나 집단토의 과정에서 조사자들의 주관적인 판단이 이입될 소지가 많다(knodel et al., 1987). 인구학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변수들 사이의 이론적 관계들이 토론자들에 의하여 항상 표출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집단토의의 사회자에 의한 심층적인 조사에서도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조사자들은 포커스그룹연구에서 얻어낸 내용들을 살펴본 후에 변수들 사이의 관계들을

이끌어 내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 결과 가설들이 지지를 받는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것 자체가 통계적이고·양적인 절차를 이용하는 경우보다 훨씬 덜 정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서 자료가 본질적으로 질적이라는 점과 표본이 적다는 점 그리고 집단토의의 참가자들이 의도적으로 선발된다는 점등이 통계적인 일반화를 힘들게하는 이유들 중의 하나이다 (Knodel et al., 1987).

그러나 포커스그룹 면담연구의 장점은 조사과정에서 집단토의 참석자들이 이해못하는 질문들에 대하여 바로잡아 줄 수 있으며 설명해 줄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포커스그룹세션에 참가하는 기혼여성들에게 출산행위와 같은 민감한 주제에 대하여 집단토의 방식은 일반적으로 토의를 자유롭게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방법의 또 다른 장점은 집단토의의 참가자들이 토론중에 각자가 표현한 관점들에 관하여 서로서로 자극을 가능케한다는 점이다(Knodel et al., 1987).

Ⅲ.포커스그룹세션의 연구수행 방법과 절차

본 연구는 한국의 출산력감소의 전과 후의 상황들을 비교하기 위하여 실시하였으며 특히 출산력의 감소에 대한 여성의 지위가 미치는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11개의 세션이 대구시와 인근지역에서 행해졌다.

포커스그룹세션의 4집단은 그들의 가입기간이 이미 지난 여성들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나이많은 세대들은 연령, 사회계층, 거주지역등의 세가지 기준에 의해 선정되었다. 즉 조사실시 당시 5명 이상의 자녀를 가진 60세 이상의 기혼여성으로 남편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상류층과 하류층으로 구분되었으며 거주지역에 따라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으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포커스집단을 스크린하는 과정에서 중개역할을 한 사람들의 이해부족으로 인하여 출생아수가 아니라 생존아수를 바탕으로 집단이 선정된 경우도 있다는 점을 밝혀둔다.

1960년대 초기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농촌지역에서의 출산력감소의 흔적은 거의 찾아볼 수 없었던 관계로 본 연구가 수행된 1989년 현재 60세 이상의 기혼여성들은 그들의 재생산활동기간이 이미 지났거나 거의 끝나가는 사람들로 간주할 수 있다.

최소한 5명의 자녀를 가진 여성들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는 것은 현재 가족을 구성하는 단계에 있는 젊은부부들과 비교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기존의 연구들(Knodel, et al., 1987)에 따르면 위와 같은 나이든 여성들은 한국의 출산력이 변천하기 시작하기 바로 직전에 자녀들의 출산을 끝낸 전형적인 세대에 속한다. 예를 들면 김한곤(1985)과 조리재등(1982)에 의하면 1960년도의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6.2였다.

상대적으로 젊은 세대에 속하는 조사대상자들을 선정하는 기준으로는 많어도 3명이하의 자녀를 가지거나 그러기를 바라는 30세 미만의 기혼여성으로서 도시와 농촌지역의 거주지역과 직업의 유무 그리고 상류계층과 하류계층등을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포커스그룹 면담질문과 관련된 문제점들을 가려내기 위하여 면담내용의 지침서를 가지고 사전검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사전검사를 위한 포커스집단은 대구시에 거주하는 하류계층에 속하는 4명의 기혼여성들로 이루어졌다. 사전조사에서 피조사자들에 의해 밝혀진 애매한 질문들은 수정보완되었다. 사전검사를 위한 포커스그룹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동질성을 가진 기혼여성들을 같은 장소에 정해진 시간에 모으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실감하게 되었다.

지금부터 11개의 포커스집단의 주용 특성들

에 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집단 1: 나이많은 상류계층의 기혼여성

본 집단은 대구시의 쾌적한 아파트에서 기혼 자녀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60세 이상의 여성 8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면담은 도심에 있는 청운아파트단지에서 1989년 8월 21일에 행하여 졌으며 110분 동안 지속되었다. 포커스그룹연구에 참여한 사람들의 평균연령은 73세이며 이들의 초혼연령은 17였다. 이들 가운데 공식적인 학교교육을 받은 사람은 한명도 없으며 그들의 평균생존아수는 5.5명이다.

집단 2: 나이많은 도시하류계층의 기혼여성

이 집단은 노인학교에 참여하고 있는 노인중에서 가정환경이 비교적 열악한 60세 이상의 기혼여성 8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담은 1989년 7월 10일에 이루어졌으며 약 2시간동안 지속되었다. 그들의 평균 연령은 65세이며 그들의 평균초혼연령은 16세이다. 이들 역시 학교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며 평균생존아수는 6명이다.

집단 3: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60세이상의 상류층 기혼여성

대구시 인근지역의 농촌에 살고 있는 8명의 기혼여성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67세이며 본 조사는 1989년 7월 24일 2시간동안 실시되었다. 토론참석자들의 평균초혼연령은 15세이며 이들 역시 학교교육을 받은 적이 없으며 평균생존아수는 5.7명이다.

집단 4: 농촌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하류층 기혼여성

본 포커스그룹은 대구근교의 농촌에 살고있는 60세 이상의 기혼여성 7명으로 구성되었다. 본 면담조사는 마을입구에 있는 큰 나무아래에

서 1989년 7월 28일 2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61세이며 그들의 평균초혼연령은 18세이며 이들의 평균생존아수는 5.5명이며 이들 역시 학교교육을 받은적이 없다.

집단 5: 도시지역의 상류층의 젊은 기혼여성

이 집단은 대구지역에 거주하는 상류층의 30세 미만의 7명의 가정주부로 구성되어있다. 그들은 상류층의 사람들이 모여사는 쾌적한 아파트단지에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다. 이들에 대한 면담은 1989년 7월 20일 오전 10:30분부터 12:30분 까지 약 2시간에 걸쳐 이루어졌으며 이들의 일반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8세이며 그들의 평균초혼연령은 23세이다. 이들의 평균학력은 15년이며 평균2.5명의 자녀를 기대하고 있다.

집단 6: 도시하류계층의 젊은 주부

대구시에 거주하는 하류계층의 가정주부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담이 이루어질 당시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면담은 1989년 8월 12일 오전에 이루어졌으며 약 90분 동안 지속되었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7세이며 그들의 평균초혼연령은 23세이다. 이들은 모두 고등학교 정도의 학력을 가지고 있으며 평균기대 자녀수는 2.2명이다.

집단 7: 도시상류계층의 직장여성

이들은 대구시에 거주하며 약사업종에 종사하는 6명의 약사들로 이루어져 있다. 면담은 1989년 8월 30일 대구동산의료원에서 약 90분 동안 이루어졌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27세이며 그들의 평균초혼연령은 25세 이다. 이들의 평균학력은 16년이며 기대하는 평균자녀수는 1.3명이다.

집단 8: 도시하류계층의 젊은 직업여성

본 집단에 속하는 6명중 4명은 소규모의 자영업에 종사하며 나머지 2명은 제조업체에서 육체노동자로 고용되어 있다. 면담은 1989년 8월 18일 약 100분간 이루어졌다. 그들의 평균연령은 28세이며 평균초혼연령은 23세였다. 이들의 평균학력은 10년 정도이며 기대되는 평균 자녀수는 2.5명이다.

집단 9: 농촌의 상류계층 젊은 가정주부

대구근교에 거주하는 상류계층에 속하는 가정주부들로 이루어졌으며 면담은 1989년 7월 31일 왜관지역에서 약 110분간에 걸쳐 행해졌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28세이며 그들의 평균초혼연령은 24세이다. 이들의 평균학력은 11년이며 기대되는 평균자녀수는 2.6명이다.

집단 10: 농촌지역 하류계층의 젊은 가정주부

대구시 근교지역에 거주하는 하루계층의 가정주부들로서 이들은 구미근처의 주거환경이 나쁜지역에 세들어 사는 7명의 참가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본 면담은 1989년 7월 24일 약 100분간에 걸쳐 이루어 졌다. 그들의 평균연령은 27세이며 평균초혼연령은 23세이다. 이들의 평균 학력은 11년이며 기대되는 평균자녀수는 2.5명이다.

집단 11: 농촌지역의 직장을 가진 젊은 여성

대구근교에 소재하는 전자공장의 조립일에 종사하는 7명의 여성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면담은 7월 22일 약 2시간에 걸쳐 이루어졌다. 이들의 평균연령은 27세이며 평균초혼연령은 22세이다. 이들의 평균학력은 9년이며 기대되는 평균자녀수는 2.5명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와 같이 11개의 포커스 집단의 면담에 참여했던 여성들은 가임기에 있는 여성이든 가임기를 지난 여성이든 한국의

전체 여성이나 혹은 대구여성을 대표하는 것은 아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1989년 현재 60세 이상의 여성들은 1960년대에 한국에서 출산력의 변천이 일어나기 시작할 때 가임기가 끝나가고 있었던지 아니면 가임기를 지난 사람들이었다. 그러므로 출산력감소가 일어났던 시기에 가임기에 속했던 여성들은 본 연구의 표본에서 제외되었다.

생존아수가 5명 보다 적은 60세 이상의 여성들 역시 제외시켰으며 젊은 시절에 짐바갈의 일에 종사했던 나이많은 여성들 역시 생략되었다. 그러나 이들 두 집단은 모두 숫적으로 매우 적으며 특히 뒷 집단은 더욱이 그러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포커스 집단 연구에 참여한 나이많은 여성들 특히 대구근교 농촌지역의 여성들은 그들 일생의 거의 대부분을 그들의 지역사회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다. 노텔과 그의 동료들이 지적한 바와 같이 이러한 포커스집단 참여자들은 "토론과정에서 포함된 여러 부분들과 관련하여 지역사회의 다른 사람들의 태도와 행위에 관해 잘 알고 있을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그들 세대가 공유했던 부분에 대한 정보제공자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1987: 217-218).

포커스집단의 숫자에 대한 대표성의 문제는 그다지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통계적인 일반화를 시도하기 보다는 양적인 자료를 통해서 얻어 낼 수 없는 출산력의 변천에 관한 깊이 있는 정보와 통찰력을 포커스그룹연구와 같은 질적인 자료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데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IV. 한국의 출산력 감소과정에 대한 질적 연구결과

지난 30년에 걸쳐 한국이 경험한 괄목할만

한 출산력의 감소에 대하여 언급한 많은 인구 학자들에 따르면 1960년 이전에는 출산력 감소가 거의 없었다고 한다. 한국의 출산력 감소에 대한 여러 연구에 의하면(Cho, 1982; Kim, 1985; Cho, 1987; 경제기획원, 1988)합계출산율은 1960년에 6.2에서 1967년 5.4 1974년 3.5 1981년 2.7 1985년 2.1로 지속적인 감소를 보여주고 있다. 1985년 이후의 지속적인 출산력의 감소로 최근의 자료에 의하면 1988년의 합계출산율은 1.8이하로 떨어졌다(경제기획원, 1988). 이러한 맥락에서 지금부터 한국의 출산력 감소와 관련한 일련의 문제와 의문점들을 규명하기 위하여 질적자료를 도입하고자 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11개의 포커스집단 면담조사에 참여했던 기혼여성들의 토론내용을 실제로 인용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는데 왜냐하면 이러한 질적인 내용들은 참가자들이 토의했던 내용을 직접듣게 해주며 출산력 감소의 주요 요소들을 이해할 수 있게하기 때문이다. 각각의 인용들은 포커스그룹연구에 참여했던 다양한 여성들이 토론했던 내용들이며 이러한 인용문들은 포커스세션에 참여한 여성들이 발언한 대부분의 느낌과 인식들을 대표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다루고자 하는 여러 주제들은 한국의 출산력감소의 다양한 면들을 파악하는데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와 같은 주제로서 첫째 기대되는 가족규모, 아들선호, 재생산행위의 변화에 대한 인지등이다. 다음으로는 한국사회에서의 여성의 지위에 관한 것과 관련하여 여성의 교육과 가족규모, 여성의 노동력 참가, 출산력의 결정에 관여하는 여성들의 자율성등이다. 마지막으로 출산력에 가장 중요한 결정인자와 관련한 여러 문제들로서 초혼연령, 출산력 감소 이전의 산아제한의 부재, 절제, 질외사정, 인공유산, 터울과 모유수유, 산아제한을 위한 잠재적 요구, 그리고 젊은 여성들 사이의 출산력에 대한 사고방식등이다.

1. 기대되는 가족규모

본 연구의 포커스그룹세션 결과에 따르면 가임기를 지난 기혼여성들의 경우 평균생존아수가 5내지 6명인데 비해서 아직 가임기에 속해 있는 기혼여성들의 경우 평균기대출산아수는 2.1명이다.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집단 사이의 출산아수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즉 포커스그룹세션에 참석한 젊은 여성들의 3/4 이상이 2명이하의 자녀를 가지겠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이들의 평균기대자녀수 2.1명은 나이많은 여성들의 생존아수의 약 1/3에 해당하는 것이다.

물론 젊은여성들의 경우 그들이 실제 출산할 자녀수가 원치않은 출산에 의해서 실제로는 더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가임기에 있는 한국의 젊은 기혼여성들은 피임을 광범위하게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십년전 보다는 바람직한 자녀수로 가족규모를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다. 또한 원치않는 자녀들의 출산가능성을 고려하더라도 젊은여성들이 종료할 실제 출산아수는 20년 혹은 30년 전의 가임기에 속했던 사람들 보다는 훨씬 낮을 것임에는 틀림없다.

나이많은 여성들의 경우 그들의 가족규모는 일반적으로 그들 자신들이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었으며 그들이 거의 통제할 수 없는 자연적인 결과로 보는 것이 더 맞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이들 세대들은 가족규모에 대한 특정의 목표를 가지고 있지않은 것 같으며 임신이 되는대로 출산했다고 볼 수 있다.

"산아제한 하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만큼의 자녀수만큼 통제할 수 없었다. 그래서 임신하는대로 애를 낳았다". (대구시에 거주하는 상류층의 나이많은 가정주부)

"애 낳는 것을 조절할 방도가 없어서 임신이 되는대로 애를 낳았지." (대구근교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상류층의 나이많은 주부)

그러나 포커스그룹에 참여했던 젊은세대와 나이많은 세대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오늘날의 사정은 매우 다르다는 점이다. 심지어 나이 많은 응답자들도 오늘날의 부부들이 명심해야 할 중요한 문제중의 하나로 자녀수를 고려하고 있다.

2. 아들 선호

선호하고 있는 수 만큼의 아들을 낳지 못한 경우에 한국의 부부들은 그들이 원래 계획했던 가족규모를 초과하더라도 출산을 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자녀를 몇명이나 낳을까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아들의 선호는 매우 중요하고 고려대상이다. 그러므로 아들선호는 한국의 가족규모를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한국에서의 아들선호는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으며 경제적인 고려, 결혼과 상속제도, 그리고 혈통의 승계등 많은 부분과 관련을 맺고 있다.

비록 아들에 대한 선호정도가 감소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남아들이 여아들 보다는 가치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장남은 가계의 혈통을 유지하며 결혼후에는 부모와 같이 살기를 기대받고 있다. 반면에 딸들은 가계혈통을 승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결혼후 그들의 친부모와 같이 살기를 기대받지도 않는다. 대신에 결혼한 상대남성이 장남 일때 그들은 남편의 부모와 동거하기를 기대받는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든지 아들 하나는 낳아야한다는 아들선호가 아직까지도 지배적이라 할 수 있다.

"결혼하기 전에는 아들을 선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딸보다는 아들을 선호합니다. 나 자신이 딸로서 친정부모께 할 수 있는 일과 결부하여 생각해 보면 시부모에게만 최선을 다해야한다는 한국의 전통적인 관습으로 인하여 친정부모에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나는 내 자신이 아들이었다라면 하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대구시에 거주하는 상류층의 젊은 가정주부)

"가계혈통을 승계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아들이기 때문에 아들이었다라면 하고 생각할 때가 있다. 딸은 현실적으로 많은 부분에서 대접을 잘 받지 못한다." (대구시에 거주하는 하류계층의 직장여성)

"내 자신이 아들에게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아들을 선호합니다. 아들을 가진다는것 자체가 기분 좋게 하고 아들이 있다는 사실이 무척 자랑스럽습니다." (대구근교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하류계층의 직장여성)

3. 재생산 행위변화의 인지정도

포커스 그룹세션에 참여했던 나이많은 여성이나 젊은 여성 모두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재생산행위나 태도의 변화를 잘 알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없이 나이많은 여성들은 오늘날의 젊은 여성들이 그들 자신들 보다는 훨씬 적은 수의 자녀를 가질 것이라고 믿고 있다. 오늘날의 젊은 여성들은 그들 부모세대들의 전형적인 다자녀관보다는 자녀수가 적은 가정을 원하고 있다는 것 역시 관찰되었으며 새로운 가족의 모델로서 2명의 자녀를 가지는 것을 이상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내 자식들은 산아제한을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세대보다는 훨씬 적은 수의 자녀를 가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자녀양육에 많은 돈이 들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구근교의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하류계층의 나이많은 가정주부)

"요즈음은 애를 적게 가지는 것이 새로운 경향이기 때문에 젊은 세대들은 예전보다 훨씬 적은 자녀를 가질 것이며 그래서 애를 많이 낳지 않을 것이다." (대구시에 거주하는 상류층의 나이많은 여성)

"나는 애키우는데 내인생의 모두를 보내고 싶지는 않아요. 정부의 인구정책 역시 애를 적게 낳는 것을 장려하고 있지 않는가." (대구시의 상류층 전문직 종사여성)

"요즈음의 젊은세대는 많은 애를 키우는데 그들의 일생을 보내기 보다는 그들의 인생을 즐길려고 하기 때문에 애를 적게 낳는다." (대구근교 농촌지역의 상류층 가정주부)

지금부터 한국의 여성지위와 관련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하여 질적인 자료를 제시하며 논의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질적인 자료에 의하면 교육정도, 여성의 자율성, 여성의 노동력참여등과 같은 여성의 지위와 관련하여 젊은 세대와 나이많은 세대 사이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출산행위의 변화는 교육성취면에서 주로 생겨난 것 같다.

4. 여성의 교육성취도

한국여성의 교육정도는 괄목할만한 향상을 가져왔다. 포커스그룹세션에 참여했던 나이많은 여성들 31명 가운데 공식적인 교육을 받은 사람은 단 한명도 없었다. 이러한 현상은 아마

도 나이많은 세대가 국민학교에 다닐 연령 혹은 국민학교 취학연령을 넘기후에야 서구식의 새로운 교육제도 자체가 우리나라에 보편적으로 도입되었던 것과 무관하지 않으며 또한 그 당시 남존여비 사상에 의하여 여성들에게 학교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점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다. 대조적으로 포커스그룹 세션에 참여했던 7개의 젊은 여성집단의 경우에는 가장 낮은 평균학력이 9년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젊은 여성들의 대부분은 고등학교 정도의 교육수준을 마친 것으로 보인다.

본 포커스그룹세션 자료는 교육수준과 출산력의 감소 사이에 상당히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각각의 포커스그룹세션마다 참석자들에게 그들이 성장하던 때와 비교해서 오늘날의 자녀들은 더 많은 교육을 필요로 하는지를 질문했다. 예외없이 모두가 그들의 자녀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함을 인정하고 있었다. 일곱개의 포커스세션집단 중에서 약사들의 2명만 제외한 나머지 참여자 모두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보다 많은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자녀수와 관련이 있다고 동의하고 있다.

"우리가 자랄때와 비교해 보면 요즈음의 애들은 훨씬 많은 교육을 필요로 한다. 물론 보다 많은 교육을 자녀들에게 제공하는 일이 앞으로 몇명의 애를 낳을 것인가에 영향을 미치죠." (대구시의 하류층의 젊은 직장여성)

"물론 요즈음의 애들은 우리가 자랄때 보다 훨씬 많은 교육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애를 적게 낳으면 적은 돈으로 보다 많은 교육을 줄 수 있지 않겠어요." (대구시의 상류층의 젊은 직장여성)

"나 역시 요즈음 애들은 내가 클때보다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봐요. 애들한테 더 많은 교육을 주기 위해서는 더 많은 돈이 필요하므로 내가 원하는 자녀수와 더 많은 교육을 주는 것 사이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대구시의 하류층의 젊은 가정주부)

"우리가 어렸던 수년 전보다 오늘날의 애들에게 더 많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자녀들에게 보다 많은 교육을 줘야하는 것이 요즘 젊은 부부들이 원하는 자녀수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근교 농촌지역의 하류층의 나이많은 여성)

5. 여성들의 노동력 참여

오늘날까지도 결혼한 여성이 집바깥의 직업을 가지는 비율이 비교적 낮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질적인 연구자료에 의하면 기혼여성들의 노동력참여에 대한 사람들의 태도에는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다. 31명의 나이많은 여성가운데 집바깥의 일을 한적이 있는 사람은 단 한명도 없다. 포커스그룹연구에 참여했던 46명의 젊은 여성들의 친정어머니 가운데 단지 2명만이 집바깥의 일을 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46명의 젊은 기혼여성들은 1989년 면담당시 집바깥의 일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19명이었다. 그러나 전체 젊은 여성 참여자 가운데 41퍼센트가 일을 갖고 있다는 것은 우리사회 전체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보다 다소 높다고 볼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포커스그룹을 형성할 당시 본 연구의 목적상 직업을 갖고있는 사람들을 뽑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가 많거나 나이가 젊은 세대의 여성들은 기혼여성들의 노동력참여와 관련하여 태도의 변화를 보이기 시작한 징조를 보이고 있다.

"나는 일 한다는 사실 자체가 좋은 것이기 때문에 집 바깥의 일을 가진다는 것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대구근교 농촌의 하류계층의 직장을 가진 여성)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적은 수의 자녀를 가지고서 집에서 해야할 일이 더 이상 많지않기 때문에 그들이 일할 능력만 갖고있다면 결혼을 했더라도 일한다는 것이 좋다고 생각해요." (대구근교의 농촌에 거주하는 하류계층의 젊은 주부)

"바깥에서 일을 한다면 더 많은 사회활동을 할 수 있으니까 괜찮지 않겠어요?!" (대구근교 농촌의 상류계층의 젊은 가정주부)

"나 자신에게는 결혼후 집바깥에서 일한다는 것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었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의 대부분은 집바깥에서 일한 경험이 없었으며 또한 집바깥에서 일을 하지않도록 되어있었으니까요. 그러나 오늘날의 젊은 여성들의 경우 그들의 환경이 그들로 하여금 일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면 결혼을 했더라도 일을 가지는 것이 괜찮다고 생각한다." (대구근교 농촌지역의 상류층의 나이많은 여성)

"우리들은 결혼후 집바깥의 직업을 갖지 아니하도록 되어 있었으며 결혼 전에도 집안일 외의 일은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었지요. 오늘날의 젊은 여성들도 일단 결혼한 후에는 집바깥의 일을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결혼을 한 여성들은 그들 자신이 남편과 아이들, 그리고 집안살림을 하는데 최선을 다해야하기 때문이죠." (대구시의 상류층에 속하는 나이많은 여성)

"결혼한 후에는 절대 집안일 이외의 일을 갖

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날의 젊은 여성들은 집바깥의 일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결혼후에도 그런 일을 하는 것이 나쁘지 않을 것 같네요." (농촌지역의 하류계층의 나이많은 여성)

이와 같은 본 연구의 질적인 연구결과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에 대한 태도에 상당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포커스그룹에 참여했던 젊은 여성들 가운데는 한가지의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혼여성들이 바라는 자녀수와 관련하여 불배 직업을 가진 여성과 직업을 갖지않은 여성사이에 의미있는 차이를 발견할 수 없다. 이들의 대부분은 약 2.5명의 자녀를 바라고 있다. 그 한가지 예외는 약사들로 구성되어 있는 포커스집단의 경우로서 바라는 자녀수가 평균 1.3명이며 그러한 숫자는 다른 젊은 여성들이 희망하는 자녀수의 거의 절반에 해당하는 것이다.

6. 여성의 자율성

포커스그룹세션의 각 그룹마다 참여자들에게 그들이 바라는 자녀수를 누가 결정하는지를 질문했다. 비록 몇몇의 경우에는 그들의 남편이 결정한다고 응답했지만 그외 대부분의 젊은 여성들은 남편과 공동으로 결정한다고 응답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나이많은 여성들의 대부분은 그들의 시어머니가 결정을 했거나 혹은 한번도 논의한 바가 없었다고 응답했다.

"우리 시어머니께서 우리가 몇명의 아이를 낳아야하고 아들이 몇이나 되어야하는지에 대한 일차적인 결정권을 갖고 계셨다. 남편과는 애를 몇명 낳을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도 의논한 바가 없었다." (대구근교 농촌의 하류계층의 나이많은 여성)

"남편과 나 자신이 애를 몇명이나 낳을 것인가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갖고있었지만 우리는 한번도 의논하지는 않았다. 임신이 되는대로 모두 낳았지." (대구시의 상류층의 나이많은 여성)

"몇명의 애를 낳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우리 시어머니였지. 남편과 나 사이에는 이런 일에 대해 한번도 거론한 적이 없지." (대구시의 하류층의 나이많은 여성)

"남편과 나 자신이 몇명의 자녀를 낳을 것인가를 결정하며 우리는 이러한 것에 대해 종종 의견을 나누죠." (대구시의 하류층의 직업을 가진 젊은 여성)

"우리 남편이 애를 몇명 낳을 것인가를 결정합니다." (대구시의 하류층의 직업을 가진 젊은 여성)

"애를 몇명 낳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사람은 나 자신이지만 우리 남편과 그러한 문제에 대해 의논을 합니다." (대구시의 상류층의 직업을 가진 젊은 여성)

포커스그룹세션에 참여한 사람들에게 몇명의 자녀를 낳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일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누가 최종적으로 결정권을 가지는가에 대한 질문을 했으며 그러한 질문에 대한 응답은 다음과 같다:

"서로 의견이 상충되는 경우에는 우리 남편이 최종결정을 하였지만 시어머니의 의견이 상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대구시의 하류계층 나이많은 여성)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 우리

의 풍습이기 때문에 의견이 상반될 때는 남편이 결정했지요.” (대구시의 상류층의 나이많은 여성)

“몇명의 아이를 낳을 것인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 때 아마도 남편이 결정권을 가질 겁니다. 그런 경우에 남편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나 자신에게 좋아요. 왜냐하면 남편을 따르는 것이 내 자신을 편안하게 하니까요.” (대구근교의 농촌지역의 상류층의 젊은 가정주부)

“애를 몇명 낳을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부부는 동등한 권리를 갖고 있다고 봐요. 만약에 우리 둘 사이에 이점에 대해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다면 남편이 나의 의견을 따르도록 설득할 겁니다.” (대구시의 상류층에 속하는 직업을 가진 젊은여성)

이러한 질적 연구결과를 가지고 나이많은 세대와 비교해 볼 때 젊은여성들 사이의 자율성은 팔목할만한 향상이 있었다고 결론내릴 수 있다. 여성의 지위 특히 교육수준에 있어서의 상당한 증진이 출산행위의 결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것으로 나타났다.

지금부터는 출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결정인자를 다루기 위하여 질적인 자료를 가지고 분석을 시도하려고 한다. 봉가트와 포터(Bongaarts and Potter, 1983:1)에 의하면 프록시미트(proximate) 결정인자들을 통하여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요인들이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생물학적이며 행위적인 요인들을 밝힐 수 있다. 즉 프록시미트 결정인자들은 출산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예를 들면 피임사용율이나 초혼연령등과 같은 프록시미트 결정인자들의 하나가 변화하면 그것이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출산력은 필연

적으로 변화한다(Bongaarts, 1983). 사실 사회경제적 요인들이 출산력에 영향을 줄때 그들은 하나 혹은 그 이상의 프록시미트 결정인자들을 통하여 영향을 주게 된다(Bongaarts, 1978).

다음과 같은 프록시미트 결정인자의 범주에 따라 질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즉 초혼연령, 출산력의 감소이전의 출산력규제, 출산력 감소이전의 산아제한의 부재, 절제, 질외사정, 인공유산, 출산간격과 모유의 수유, 산아제한을 위한 잠재적인 요구, 젊은세대의 출산력 규제.

7. 초혼연령

한국은 최근에 초혼연령이 높아졌으며 이러한 경향은 출산력의 감소에 지대한 공헌을 한 것에 틀림이 없다. 본 연구의 포커스그룹세션에 참여했던 여성들 가운데 나이 많은 여성의 대부분은 16세에 결혼한 반면에 젊은 여성들의 대부분은 약 23세에 처음으로 결혼했다.

포커스그룹세션에 참석한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아들이나 딸들의 결혼연령에 적당한 연령이 몇세인가에 대한 질문을 하였다. 또한 젊은 여성들에게는 그들의 현재 자녀나 혹은 기대하고 있는 자녀들의 결혼연령에 대한 질문을 하였으며 나이많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결혼할 자녀가 있다는 전제하에 같은 질문을 하였다. 이들 두세대의 여성들 모두 딸들은 20대 중반 그중에서도 23세가 결혼하기에 가장 적당한 연령으로 응답을 하였으며 아들의 경우에는 20대 후반으로 27세가 결혼 적령으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다. 참여자들은 한결같이 결혼에 있어서 최소한의 나이와 늦어도 결혼해야 하는 최대한의 나이에 많은 관심을 표시하였다. 여성들이 결혼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연령을 정당화 하는데에는 성숙한 정도와 학교교육을 마치고 책임을 수행할 수 있는 나이를 의미한다. 반면에 토론참여자들의 상당수는 여성이 늦어

도 결혼해야할 최대한의 나이를 30세로 설정하고 있으며 30세가 되도록 결혼하지 않은 여성들은 배우자를 찾는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을 것을 우려하고 있었다.

남자들이 결혼하는데 최소한의 연령은 군복무를 마친 시기를 들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결혼준비가 된 경우를 나타내고 있다.

"29살이 결혼하는데 가장 알맞는 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 나이가 되면 학교교육도 마치고 군복무도 끝내고 결혼할 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대구 근교 농촌지역의 하류계층의 나이많은 여성)

"아들이 결혼하는데는 27살이 적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들이 결혼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공부를 마치고 군복무도 끝내야 해요. 그리고서 직장을 가져야 결혼할 준비가 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구시의 하류계층의 나이많은 여성)

"나는 26살이나 27세가 우리 아들이 결혼하는데 적당한 나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그 나이가 되면 대학교를 졸업하고 안정된 직장을 가져서 그 자신의 가족을 부양할 준비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구시의 상류계층의 젊은 가정주부)

"29살이 우리 아들이 결혼하는데 적당한 나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때가 되면 경제적으로 독립이 가능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농촌의 상류층 젊은 가정주부)

토론에 참여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초혼연령으로 적당한 나이에 대하여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거의 유사한 이유를 나타내

고 있다. 즉 초혼연령과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있어서 젊은여성이나 나이가 많은 여성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자녀에 관해서는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다. 나이 많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그들의 부모가 그들의 배우자를 선택해서 결혼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의 젊은 여성들에게는 더 이상 그다지 흔치 않은 현상인 것이다. 오늘날 한국의 부모들이 그들 자녀들의 결혼상대자를 임의로 결정하는 일은 매우 드물며 자녀들이 배우자를 선택하는데 조언을 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여기서 산아제한의 실행에 대한 과거와 현재의 지식과 태도에 대한 본질을 가늠할 수 있다면 한국에서의 재생산행위의 변화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것이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포커스그룹세션에서 행해졌다. 즉 실질적인 출산력감소가 이루어지기 이전에 산아제한이 얼마나 알려져 있었으며 어느 정도 실행되었는가? 오늘날과 같은 산아제한 방법이 널리 이용되기 이전에 가족의 규모를 통제하는 매카니즘이 존재했는지의 여부. 인구변천 이전 세대의 여성들에게도 출산을 제한하려는 잠재적인 요구가 있었는지? 젊은세대에서 산아제한을 많이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이며 어떠한 것들이 작용을 했는가? 등이다.

8. 산아제한의 부재

대부분의 나이많은 여성과 젊은 여성들은 옛날에는 산아제한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히고 있다.

"우리가 애를 낳을때는 애를 적게 낳는 방법이 없었다. 임신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절제하는 것이었다." (대구근교 농촌의 하류층의 나이많은 여성)

"원치않은 아이를 낳지않을 방법이 전혀 없었다. 임신이 되는대로 모두 낳았다." (대구시의 상류층의 나이많은 여성)

"우리 부모들은 오늘날과 같은 근대적인 피임방법이 없었던 시절에 가임기를 보냈다. 나는 그들이 피임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대구시의 하류층의 젊은 직업여성)

"나이많은 세대가 아이를 많이 낳은 것에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다고 봐요. 첫째는 오늘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피임방법이 그 당시에는 없었고 둘째는 그들이 생각하기를 태어나는 애는 제 먹을 것은 가지고 태어난다고 믿었기 때문에 많은 애를 낳기를 원했을 것이다. 세째는 오늘날 우리가 애들을 교육시키는데 드는 많은 비용을 그 당시에는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것도 이유중의 하나가 되겠지요." (대구시의 하류층의 젊은 주부)

포커스그룹에 참가했던 대다수의 사람들은 나이많은 여성들의 재생산행위는 자연적인 출산에 상당히 가깝다고 밝히고 있다. 즉 실질적인 산아제한이 거의 없었다는 것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진 것과 같은 피임방법은 실행되지 않았으며 효과적이고 현대적인 피임법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다. 아이의 수를 제한하려는 의도를 가진 사람들은 매우 비효과적인 방법에 전적으로 의존해야만 했던 것이다. 몇명의 토론참여자들은 조선간장을 한바가지 마신다던지 장독대의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충격을 가함으로써 유산을 시도한다던지 하는 옛날부터 전해 내려오는 민간풍습으로 산아를 제한 할려는 시도가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외에 질외사정이나 절제동이 임신을 피하거나 출산을 피하는 방법으로 이용되었지만 이와같은 방법들은 그다지 효과가 있었던 것 같지는 않다.

그러므로 나이많은 세대에 있어서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피임을 실천하지 않았으며 상대적으로 효과적일 수 있는 전통적인 피임방법에 관한 지식마저도 거의 없었던 것 같다.

9. 절제

나이많은 토론참여자들 가운데 두사람이 주저 끝에 털어놓는 얘기로는 애를 그만내기 위해서 절제를 했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에 젊은 여성들의 몇명은 피임도구가 미처 준비되어 있지않은 상태의 일시적인 방편으로 절제를 한다고 응답했다.

"애를 그만 낳으려고 절제를 시도했었지만 의도한 대로 되지는 않았고 때로는 어쩔수 없었다." (농촌의 상류층 나이많은 여성)

"우리 어머니 세대의 남편들은 애를 그만 낳기 위해서 부인과 한방에서 잠을 자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고 들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요즈음은 효과적이고 다양한 종류의 피임방법이 많이 있기 때문이죠." (농촌의 하류층의 젊은 직장여성)

"피임도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을때 원치않은 임신을 피하기 위해서 때로는 절제하는 경우가 있지요." (대구시의 상류층의 젊은 직장여성)

산아제한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부부행위를 삼가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 때문인지를 토론참여자들에게 물었다. 나이많은 연령층에서는 일단 손자나 손녀를 보고나면 부부행위를 금한다는 것을 알게되었다. 그러나 대조적으로 젊은여성의 경우는 그들이 부부행위를 할 수 있는 한에는 부부행위를 지속하겠다고 대답했다.

"며느리를 보게되면 부부행위를 그만둬야 한다고 생각한다." (농촌상류층의 나이많은 여성)

"나이가 들면 남편하고 그만 같이 자야지." (농촌의 하류층의 나이많은 여성)

"며느리를 보고나서 손자나 손녀를 볼 나이가 되면 남편과 같이 잠자리를 가지는 것을 피해야 한다." (대구시의 상류층 나이많은 여성)

"우리가 나이가 많아진다 하더라도 부부간에 성행위를 원하는 한에는 부부행위를 그만둘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 (대구시의 상류층의 주부)

"우리부부가 성행위를 할 수 있는 한에는 우리들의 만족을 위하여 부부행위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농촌의 상류층 주부)

앞서 인용한 바와 같이 나이가 들어서 임신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부끄러운 것으로 나이많은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젊은여성들의 경우는 대조적으로 나이가 들어서 성관계를 억제하려는 어떠한 징조도 보이지 않았다. 왜냐하면 효과적인 현대의 피임법이 얼마든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효과적인 피임도구들이 나이많은 여성들이 40대에 도달했던 그 당시에는 그다지 흔치 않았던 것이다.

10. 질외사정

비록 질외사정이 몇십년 전에는 상대적으로 인기있는 피임법이었을 것으로 우리가 짐작하고 있지만 토론에 참여했던 나이많은 여성들 가운데 질외사정을 임신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적용했다고 언급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

다. 이러한 점을 보다 깊이있게 밝혀보기 위한 시도를 해보았지만 그들은 그러한 것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매우 꺼리고 있었다. 그러나 젊은여성들은 피임도구가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행위를 하게 될 경우에 종종 질외사정을 실시한다고 응답했다. 젊은여성들은 나이많은 세대들이 질외사정을 임신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실천하였을 것으로 여기고 있었다.

"나이많은 세대들은 산아제한의 한 방법으로 아마도 질외사정과 같은 방법을 사용했을 것으로 짐작된다. 우리 남편은 피임약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부행위를 할 경우에 원치않은 아이를 낳지않기 위해서 질외사정을 한다." (농촌의 하류층의 젊은 직장여성)

"나이많은 세대는 임신을 피하기 위하여 질외사정을 했을 것으로 생각한다. 내 남편은 가끔 질외사정을 하는데 왜냐하면 요즈음의 피임약이나 도구 중에는 부작용이 있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이다." (농촌의 상류층의 주부)

"나는 요즈음 젊은 부부들이 산아제한을 위해서 절제하는 경우는 없다고 본다. 그러나 피임을 위하여 IUD를 장치한 여성들이 부부행위 중에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에 남편들은 질외사정을 하는것 같다." (대구시의 상류층의 젊은 직장여성)

비록 젊은 여성들의 몇명이 질외사정을 언급하긴 했지만 그러한 경우는 규칙적인 산아제한을 위한방법으로서가 아니라 일시적으로 임신을 피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1. 인공유산

도시와 농촌에서 인공유산이 실행된 것은 상당히 오래전 부터이다. 포커스그룹세션에 참석했던 젊은세대와 나이많은 세대 모두 원치않은 임신이 되었을 경우에 이것을 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인공유산을 실시한다고 응답하고 있다. 인공유산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법이지만 본 연구의 질적인 자료에 따르면 인공유산이 산아제한에 가장 빈번히 이용되고 있는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토론참여자들의 모두가 인공유산에 관하여 알고있긴 했지만 어떤이들은 인공유산이 과거에는 그다지 흔치 않았으며 혼외의 임신이나 혼전의 성관계에 의해서 임신되었을때 이용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오늘날 인공유산은 혼외와 혼전의 성행위 결과로 인한 임신에서 기인되는 원치않는 '출산을 방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정상적인 부부관계에서 원치않는 임신이 되었을 때 이것을 피하기 위한 대안으로 매우 빈번하게 사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적어도 과거와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적은 자녀를 가지면서 적어도 아들 하나는 낳아야한다는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것 같다. 오늘날 대부분의 한국 여성들은 평균 2명과 같이 적은 자녀를 원하며 첫 아이가 딸이고 그 다음에 임신을 했을 경우 초음파 검사를 통하여 태아의 성별을 감지하여 여아로 판명될 경우에 인공중절수술을 하는 일이 상당히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오늘날 우리사회에서 상당히 일반적인 현상이며 출생시 성별이 유례적으로 높은(약 118, 1988) 주요원인이 된다고 생각된다.

"출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공유산을 여러번 했다."(대구시의 하류층의 나이많은 여성)

"터울을 조정하기 위하여 인공유산을 한적이

있다. 이웃에 보면 인공유산은 매우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적은 수의 애를 가지고 아들도 낳기 위해서 임신후 태아가 여아라는 판별이 되면 인공유산한다는 얘기를 많이 듣고 있다."(대구시의 하류층의 젊은 주부)

"요즈음 보면 많은 사람들이 원치않는 출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공유산을 많이한다. 혼전에 임신한 처녀들이 안공유산을 많이 하는것 같다." (대구시 상류층의 젊은 주부)

"내가 아는 몇 사람은 경제적으로 많은 애들을 양육할 수 없는데 임신이 되어서 인공중절수술을 받은 적이 있다."(대구시의 하류층에 속하는 젊은 직장여성)

본 연구자료에 따르면 나이많은 여성들의 경우에는 자녀수를 제한하는 한 방편으로 가끔 인공유산을 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나이가 젊은 여성들은 피임이 실패했을 경우 그 다음의 대안으로 인공중절 수술을 하거나 애들 간의 터울을 조정하고 또한 적은 가족규모를 유지하면서 적어도 아들을 한명은 낳기위한 수단으로 초음파 검사를 통한 성감별 후 인공유산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므로 인공유산은 한국에서 출산력의 감소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에 틀림이 없다.

12. 터울과 모유의 수유

본 포커스그룹세션에 참가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연연생으로 애를 낳기 보다는 3년과 같이 몇년씩의 터울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나이많은 여성들은 터울 조정을 위하여 면밀한 행위를 시도한 흔적이 별로 없는 것 같으나 모유를 먹이는 방법을 통

하여 애들의 터울조정을 시도한 흔적이 보인다.

내 경우에는 애들의 터울을 3년 정도 하는 것이 좋았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연년생들을 키우는 것보다 나 자신에게 조금 쉬웠던 것 같아."(농촌지역의 상류층 나이많은 여성)

"내 생각에도 애들을 터울없이 막 낳아서 기르는 것보다는 3년 정도의 터울을 두는 것이 애들을 키우는데 여러모로 좋은 것 같습니다."(대구시의 상류층의 나이많은 여성)

"나는 애를 낳고 3년이나 4년 정도 지난 후에 다음애를 낳으면 첫째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다음애를 낳아서 키우게 되니까 내 자신이 애를 키우는 데에 힘이 덜 들어서 좋을 것 같아요."(대구시의 하류층의 젊은 직장여성)

본 연구의 포커스그룹세션에 참여한 여성들에게 모유를 오랫동안 먹이는 것이 다음애가 들어서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고 있었는지와 그러한 지식들이 애들의 터울을 조정하는데 적용이 되었는지의 여부에 대한 질문을 했다. 응답자들 중 나이많은 여성들의 경우 단지 몇 명만이 모유를 먹이는 것이 다음애가 들어서는데 어떠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으며 이러한 지식은 단지 그들이 모유를 오래 먹였을 경우에 다음번의 애가 들어서는데 시간이 더 걸렸던 자신의 경험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젊은 여성들은 거의 모두가 모유를 먹이는 것이 다음의 임신을 지연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렇지만 젊은 여성들이 모유를 먹이는 것을 애들의 터울을 조정하는 목적으로 사용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요즘은 효과적인 피임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모유를 먹이는 것이 다음번의 임신을 지연

시키는지에 대한 확신은 없어요. 그러나 내가 애에게 모유를 먹이고 있는 동안에는 월경이 없었어요. 나는 나와 같은 세대의 모든 여성들이 그러했듯이 내가 낳은 모든 자식들을 모유를 먹여 키웠어요."(농촌지역의 하류층의 나이많은 여성)

"내 경험에 미루어 보면 애를 낳아서 모유를 먹이는 것이 월경을 지연시키는데 영향을 준 것 같아요."(대구시의 하류층의 젊은주부)

"모유를 먹이는 것은 배란을 지연시키기 때문에 다음의 임신을 연기하는데 도움이 되지요."(대구시의 상류층의 젊은 직업여성)

13. 산아제한의 잠재적 요구

포커스그룹세션 결과에 의하면 나이많은 세대의 여성들 가운데 몇몇 사람들에게는 현대적이고 효과적인 피임방법이 널리 보급되기 이전에도 효과적으로 피임할 수 있는 피임방법에 대한 잠재적인 요구가 존재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아래서 밝히는 바와 같이 산아제한에 대한 잠재적인 요구가 존재했던 사실 자체가 한국의 출산력을 감소시킨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나이많은 참여자들 가운데 몇 사람은 자녀수를 제한하거나 터울을 조정하고 싶었지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아주 비효과적인 방법에 매달릴 수 밖에 없었노라고 말하고 있다.

"내가 애 낳는 것을 조절할 수만 있었다면 내가 낳은 애 만큼 낳지는 않았을 것이다."(대구시의 하류층의 나이많은 여성)

"만약에 피임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내가 낳은 애들 보다는 적은 애를 낳았을 텐데.

내가 아는 내 나이 또래의 몇사람은 높은 곳에서 갑자기 뛰어내려서 뱃속의 애한테 충격을 줌으로써 유산을 유도하는 것과 같은 비과학적인 방법을 통한 유산을 시도한 것을 알고 있지요."(농촌의 하류층의 나이많은 여성)

"나는 내가 낳은 애보다 적은 수의 애를 원했지만 애를 적게 낳는 방법을 몰랐었어요. 내가 알고있는 나이많은 사람들 가운데는 출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신한 상태에서 조산간장을 한바가지 마셔서 뱃속의 애를 떼낼려는 시도를 한 사람들이 더러 있어요."(대구시의 상류층의 나이많은 여성)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부모들이 산아제한하는 방법을 알고 있었더라면 아마도 실제로 낳은 자녀보다는 적게 낳았을 것이라고 믿어요."(대구시의 하류층의 젊은 직업여성)

이와 같은 결과들은 나이많은 세대들도 근대적이고 효과적인 피임방법을 알고 있었더라면 실제로 출산한 애보다 적은 수의 자녀를 낳았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우리의 자료는 효과적인 피임방법이 존재했다 하더라도 나이많은 여성들의 상당수는 여전히 많은 자녀를 낳았을 것을 보여주고 있기도 하다.

14. 젊은세대들의 출산력 규제

우리들의 질적인 연구자료에 의하면 오늘날의 젊은 부부들은 효과적인 피임방법에 관하여 매우 잘 알고 있으며 그들의 가족규모를 적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효과적인 피임방법을 도입하는 것에 대하여 전혀 주저함이 없는 것 같다. 이러한 젊은 세대들 중에도 피임도구가 준비되어 있지않은 상태에서 부부행위를 하게 되

는 경우 임시적인 피임방법으로 질의사정과 같은 방법을 때때로 사용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뿐만 아니라 피임이 일차적으로 실패하여 원치않은 임신이 되었을 때는 인공유산을 많은 젊은 사람들이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사실 젊은 세대와 나이많은 두 세대간의 종결된 가족규모나 기대되는 가족규모사이의 차이는 현대적인 피임방법을 사용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주로 기인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닌것 같다.

"나이많은 세대들은 현대적인 피임방법을 모르고 있었으며 그러한 피임방법들은 그다지 보급되어 있지도 않았어요."(농촌의 상류층 젊은 주부)

"그 당시에는 의료시설이 빈약했기 때문에 원치않은 아이의 출산을 방지할 수 없었을 겁니다."(대구시의 상류층의 젊은주부)

"요즈음 젊은 사람들은 산아제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이 원하는 수만큼의 자녀만을 낳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나이많은 사람들은 근대적인 피임도구가 보급되기 이전에 애들을 낳았기 때문에 애들의 수를 원하는 대로 제한할 수가 없었죠."(대구시의 하류층의 젊은 직업여성)

본 연구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거의 모두가 나이많은 세대와 젊은세대 사이의 가족규모의 차이가 가족규모에 대한 태도와 출산력을 통제하는 능력의 차이에서 기인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는 바라는 가족규모에 사회경제적인 차이 역시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예전과 비교해 보면 생필품은 엄청나게 많

으나 과거보다 훨씬 비싼 것 또한 사실이다. 그 결과 요즈음 부부가 애를 많이 낳으면 자녀를 양육하는데 상당히 많은 돈을 써야한다." (대구시의 상류층의 나이많은 여성)

"모든 물가가 비싸기 때문에 애키우는데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애를 적게 낳아서 애들이 원하는 것을 해줄 수 있는 것이 낫다." (농촌의 상류층의 젊은 주부)

"요즈음 젊은 사람들은 애들에게 많은 교육을 시켜줘야하고 교육시키는데 많은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예전 사람들보다 훨씬 적은 수의 애를 낳는 경향이 있다." (농촌의 하류층의 나이많은 여성)

"많은 애들을 키워야 한다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것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젊은 사람들은 애를 적게 낳을 것이라 생각해요." (대구시의 하류층의 젊은 주부)

나이가 많은 여성이든 나이가 젊은 여성이든 포커스그룹세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모두 오늘날의 모든 물건이 과거보다 훨씬 비싸다고 응답했다. 그들은 과거에 집에서 자급하거나 혹은 아주 싼 물건들과 요즈음의 물가와 비교해서 요즈음의 물가가 월등하게 높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다. 많은 자녀를 키우는 것은 신구세대 모두에게 과거에 애를 키우던 것보다는 훨씬 부담이 더 많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애를 낳아서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의 엄청난 증가는 출산력을 떨어뜨리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것 같다. 자녀를 많이 낳지않는다는 것은 한국의 젊은세대들에게 애를 키우는데 드는 부담을 감소시키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V. 맺는말

한국은 낮은 출산율과 낮은 사망율로 특징지어지는 인구변천의 제3단계에 도달해 있으며 비교적 짧은 기간에 매우 빠른 속도로 이루어진 한국의 출산력 감소는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현상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합계출산율은 1960년 6.2에서 1988년에 1.8로 감소하여 30년이 채 되지도 않은 기간동안에 합계출산율은 300퍼센트이상의 감소를 경험하였다. 나이많은 세대의 평균자녀수가 5내지 6명이었으나 젊은 세대의 평균자녀수는 2명 정도이며 1988년에 행해진 한국출산력조사 결과 역시 신혼의 젊은 부부들이 그들이 기대하는 평균자녀수는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에서 논의 한바와 같이 한국의 출산력감소에는 여러가지 요소들이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세가지 중요한 요인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급속한 사회경제발전과 더불어 급속하면서도 근원적인 사회변동이 부부들로 하여금 많은 자녀를 가지는 것을 경제적인 부담으로 여기게 한 점이다. 둘째, 정부에 의한 강력한 뒷받침을 받은 가족계획사업이 한국여성들 그중에서도 농촌여성들이 산아제한을 위한 효과적이면서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피임방법에 대한 인식의 향상과 이용의 증진을 가져다 준 것이다. 셋째, 여성지위의 향상 특히 상대적으로 높은 여성교육의 증진과 더불어 그들의 바람직한 자녀수를 결정하는데 여성들의 자율성이 향상된 것등이 출산력의 감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회경제발전의 결과는 자녀를 양육하는 비용을 직간접적으로 증가 시켰으며 그 결과 자녀를 많이 가진다는 것은 과거와 비교해 볼때 부모들에게 훨씬 많은 경제적인 부담을 가져다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이다. 포커스그룹 세션 참여자들은 젊은세대와 나이많은 세대 모

두 과거와 비교해 볼 때 생활비가 전반적으로 올랐으며 자녀를 양육하는 비용 그 자체 역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오늘날의 대다수 부부들은 그들의 자녀를 양육하는데 대부분의 시간과 정력을 보내기를 원치 않는다고 믿고 있다.

토론에 참석한 대다수 사람들은 자녀를 양육하는데 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증가한 것이 교육비와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들이 자녀들에게 대학교육을 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과거보다 훨씬 강한 반면에 과거와 비교해 보면 요즈음의 애들은 지난날의 애들이 클때 가정의 일을 돕거나 때로는 경제적으로 도움이 되었던 일과 비교해 보면 부모를 도우는 경우가 훨씬 적거나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포커스그룹세션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한국에서 괄목할만한 출산력의 감소를 경험한 것은 한국여성들의 높은 교육수준과 여성들의 향상된 지위가 사회경제발전과 가족계획사업과 더불어 소규모가족에 대한 태도와 피임에 관한 지식을 도입하여 적용할 수 있는 기반마련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앞에서 논의된 이러한 출산력 감소의 요인들은 상호밀접하게 관련되어있기 때문에 고립시켜서 생각하기 보다는 관련지위서 볼 때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다. 교육수준과 소득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많은 농촌부부들도 지난 10여년 동안 산아제한을 실시해 온 것이 사실이지만 도시지역의 교육수준이 높은 부부들이 농촌부부들 보다는 훨씬 일찍이 피임법을 받아들인 것 또한 사실이다. 사회경제적인 차이에 따라 피임의 사용정도나 가족규모의 차이가 아직까지 존재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한 차이는 점차 사라져가고 있다.

텔레비전, 자동차, 전화등과 같은 교통통신과

통신수단의 급속한 발달과 광범위한 보급은 적은 자녀를 가지는 것에 대한 열망과 새로운 사고뿐만 아니라 소규모가족에서 맛볼 수 있는 새로운 생활형태를 소개하고 홍보하는데 많은 기여를 한 것 같다.

그 결과 그와 같은 환경아래에서는 새롭고 다양한 생활에 대한 생각과 열망이 출산력을 떨어뜨리는 중요한 동기가 되고 있는 것이다. 동시에 정부에서 주도하는 가족계획사업이 산아제한에 대한 지식을 보급하고 효과적인 피임 도구들을 널리 공급함으로써 출산력의 감소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한국의 젊은 여성들의 높은 교육수준과 여성들의 자율성의 향상은 소규모가족으로의 가치와 태도를 변화시키는데 특히 기여한 것 같다. 본 연구의 면담에 참여했던 사람들에게 던졌던 프록시미트 결정인자와 관련된 질문에서도 그와 같은 프록시미트 결정인자들이 출산력의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포커스그룹세션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록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에 대한 태도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긴하지만 한국의 출산력의 감소는 그에 상응하는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의 증가없이 이루어졌음을 밝혀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한국의 출산력의 감소에 대한 연구결과는 한국과 같이 상대적으로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이 낮으면서도 현재 상당히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국가들의 인구증가 억제정책수립에 매우 중요한 대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즉 그와 같은 국가들에게 사회경제발전, 조직적인 가족계획사업의 도입과 더불어 여성들의 경제활동참여율의 증가를 동반하지 않으면서도 여성들의 다른 지위를 향상시킴으로써 출산력을 감소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표1. 11개 포커스그룹의 일반적 특성

| 집 단 | 참가자수 | 평균연령 | 평균초혼연령 | 교육수준 | 평균생존아수 |
|------------------|------|------|--------|------|--------|
| <u>나이많은 기혼여성</u> | | | | | |
| 도 시 주 부 | | | | | |
| 상 류 층 | 8 | 73 | 17 | 0 | 5.5 |
| 하 류 층 | 8 | 65 | 16 | 0 | 6.0 |
| 농 촌 주 부 | | | | | |
| 상 류 층 | 8 | 67 | 15 | 0 | 5.7 |
| 하 류 층 | 7 | 60 | 18 | 0 | 5.5 |
| <u>젊은 기혼여성</u> | | | | | |
| 도 시 주 부 | | | | | |
| 상 류 층 | 7 | 29 | 23 | 15 | 2.5 |
| 하 류 층 | 6 | 27 | 24 | 12 | 2.2 |
| 도시직장여성 | | | | | |
| 상 류 층 | 6 | 27 | 25 | 16 | 1.3 |
| 하 류 층 | 6 | 28 | 23 | 10 | 2.5 |
| 농 촌 주 부 | | | | | |
| 상 류 층 | 7 | 28 | 24 | 11 | 2.6 |
| 하 류 층 | 7 | 27 | 23 | 11 | 2.5 |
| 농촌직장여성 | | | | | |
| 하 류 층 | 7 | 27 | 22 | 9 | 2.5 |

< 참고 문헌 >

- 김한곤, 1988. "자영업에 종사하는 기혼부인의 출산행위연구", 한국인구학회지, 제 11권 제1호, Pp.87-96.
- 김한곤, 1991. "한국여성의 연령군별 무자녀율의 변동추이와 그 결정인자에 관한연구", 한국사회학, 제25집 여름호, Pp. 33-52.
- 김한곤과 포스톤, 1991. "한국여성의 지위와 출산력:1966-1985", 한국사회학, 제 25집 겨울호, Pp.177-198.
- Anderson, Barbara A., Brian D. Silver, and Paul R. Abramson. 1988a. "The Effects of the Race of the Interviewer on Race Related Attitudes of Black Respondents in SRC National Election Studies." *Public Opinion Quarterly* 52: 289-324.
- Anderson, Barbara A., Brian D. Silver, and Paul R. Abramson. 1988b. "The Effects of Race of the Interviewer on Measures of Electoral Participation by Blacks in SRC National Election Studies." *Public Opinion Quarterly* 52: 53-83.
- Bongaarts, John. 1978. "A Framework for Analyzing the Proximate Determinants of Fertility."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4:103-132.
- Bongaarts, John, and Robert G. Potter. 1983. *Fertility, Biology, and Behavior: An Analysis of the Proximate Determinants*. New York: Academic Press.
- Caldwell, John C. 1988. "Micro-approaches: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Strengths and Weaknesses." Pp. 458-470 in John C. Caldwell, Allan G. Hill, and Valerie J. Hull (editors). *Micro-Approaches to Demographic Research*. London: Kegan Paul International.
- Cho, Lee-Jay, Fred Arnold, and Tai Hwan Kwon. 1982. *The Determinants of Fertility in the Republic of Korea*,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 Cho, Lee-Jay, and Paul E. Perry. 1979. "Areal Analysis of Recent Fertility and Family Planning in the Republic of Korea." In Lee-Jay Cho and Kazumasa Kobayashi (eds.), *Fertility Transition of the East Asian Populations*. Honolulu: The University Press of Hawaii.
- Kim, Han Gon, 1985. *Macro-Analysis of Fertility Trends Among Korean Provinces: 1966-1980*. Austin, Texas: The University of Texas, Department of Sociology. Unpublished Ph.D. Dissertation.
- Knodel, John, Napaporn Havanon, and Anthony Pramualratana. 1984. "Fertility Transition in Thailand: A Qualitative Analysis." *Population and Develop-*

ment Review 10: 297–328.

Knodel, John, Napaporn Havanon, and Werasit Sittirai. 1990. "Family Size and the Education of Children in the Context of Rapid Fertility DEcline."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16:31–62.

Massey, Douglas, Rafael Alarcon, Jorge Durand, and Humberto Gonzalez. 1987. Return from Aztlan: *The Social Process of International Migration from Western Mexico*.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McCracken, Grant. 1988. *The Long Interview*. Beverly Hills, California: Sage.

Simmons, Ruth, Rezina Mita, and Michael A. Koenig. 1992. "Employment in Family Planning and Women's Status in Bangladesh." *Studies in Family Planning* 23 (March/April): 97–109.

Williams, Christine L. 1989. *Gender Differences At Work: Women and Men in Nontraditional Occupation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